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전략\*

## Approaches to Implementing Public Library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정수인 (Soojin Jeong)\*\*

이연옥 (Yeon Ok Lee)\*\*\*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기관 132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326개 사례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다문화서비스 담당 사서와 면담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1) 프로그램 내용, 2) 프로그램 운영 방식, 3)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인력 활용, 4) 타 기관과 협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sirable operational strategies for public library programs as a means to alleviate the daily difficulties fa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an analysis of 326 multicultural programs from 132 institutions, all of which wer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22. The purpose wa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dentify any issues related to these programs. Additionall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to gain insights into the challenges they encounter in Korean society and to determine their specific demands regarding library programs. Furthermore, we interviewed librarians responsible for multicultural services to better comprehend their experiences in managing such programs and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service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we have proposed four operational strategies for public library programs targeting married immigrant women. These strategies include: 1) Program content, 2) Program operation method, 3) Building a personal network and utilizing human resources, 4)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키워드: 결혼이주여성, 정보요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서비스

Married Immigrant Women, Information Needs, Public Library Programs, Multicultural Programs, Multicultural Services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3.08)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 전공 석사(jsooin21@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accesspt@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3년 8월 7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8월 2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3): 5-35,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3.005>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OECD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한다(김양은, 2009).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이 23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4.6%를 차지하여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규모는 약 35만 가구로 이 중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이며 그중 여성이 82.5%로 결혼이주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결혼이주여성은 이주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적 장벽, 정서적 지지의 부족,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제한, 낮은 학력과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등으로 취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 및 교우관계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상노, 이현심, 2014).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에 밀착하여 정보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2년 12월 도서관법이 개정되며 기존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에 '다문화가족'이 추가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는 도서관의 공적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정착, 일상적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진단하였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자인 사서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프로그램 제공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결혼이주여성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자인 사서의 경험과 인식을 종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결혼이주여성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2년 이후 중국 교포와 한족의 결혼 이주가 활발해졌다(보건복지부, 2005). 1992년 중국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가 성립된 후, 한국 정부가 농촌의

신부 부족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찾았기 때문이다(홍기혜, 2000).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임안나, 200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귀화자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그 의미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에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의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모두를 가리킨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05,064 명이고, 이중 결혼이주여성이 82.5%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거주 지역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분포는 <표 1>과 같이 경기(30.0%), 서울(18.9%)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 다문화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며, 인천(7.0%)까지 포함하면 전국 다문화 가구의 과반 이상(55.9%)이

수도권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은 2018년 대비 29세 이하 연령층은 감소하고, 30대 이상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의 경우 15년 미만 거주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혼인상태를 보면 84.8%가 유배우자, 이혼·별거 8.6%, 사별 3.2%, 미혼 3.4%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유배우자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사별, 이혼·별거 상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가구의 무자녀 비중은 42.0%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평균 연령은 9.93세이며, 다문화 출생 건수의 감소로 향후에도 자녀의 평균 연령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가족부, 2022).

## 2.2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어려움

여성가족부(2022)가 결혼이주여성이 지난 1년간 한국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어 문제(22.9%)와 경제적 어려움(21.0%)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거주 지역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분포

거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빈도(명)	57,699	12,642	8,852	21,335	6,373	6,218	5,842	1,403	91,575
비율(%)	18.9	4.1	2.9	7.0	2.1	2.0	1.9	0.5	30.0
거주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빈도(명)	7,562	10,024	15,433	11,030	12,247	14,324	17,983	4,522	305,064
비율(%)	2.5	3.3	5.1	3.6	4.0	4.7	5.9	1.5	100.0

5명 중 1명 이상이 언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외로움(19.6%), 자녀 양육 및 교육 (16.5%) 문제가 주요 문제로 나타난다. 그 밖에 친구·이웃 사귀기(7.6%), 가족 간 갈등(6.5%), 은행·기관 이용(6.1%), 편견과 차별(4.5%)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식생활 및 문화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차별적 대우, 홀로 건디는 외로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혜경, 2022;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 2014). 그밖에 정착 과정에서 겪는 자연환경 및 식생활의 변화,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며,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건강과 관련한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연옥, 장덕현, 2015).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은 다문화 지원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조 모임, 다문화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 친분을 형성하며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상노, 이현심, 2014).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모두가 다문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 잘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홀로 건디는 결혼이주여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동숙, 임해영, 김은경, 2019).

## 2.3 선행연구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선행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었다. 박경자(2020)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다룬 창작동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제안했다. 공수연, 양성은(2015)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김경애, 김정순(2015)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모성 역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김미영(2018)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부부 적응 및 관계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사랑과 성의 이해, 부모 역할 교육, 가정경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인주, 박정숙(2015)은 신체활동과 건강 책임, 자아실현,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및 영양이라는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인효연(2020)은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육, 보건·간호계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프로그램 연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 한국어교육, 보건·간호 계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성격, 내용,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영역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2009)은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현황과 이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사서, 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요구는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한다', '남편 및 시집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았으면 한다' 등으로 나타나 이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양인혜(2014)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사서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자녀교육 및 결혼이주여성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예솔, 김지현(2016)은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을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현실, 최세민, 이형선(2011)의 연구에서는 그림 동화책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

의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식별하고 그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반해, 이연옥, 장덕현, 이승민(2022)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요구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관련 도서관 프로그램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자녀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요구가 존재하기에 이들의 고유한 요구를 식별하여 이를 지원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식별하고 그 요구에 의거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 결혼이주여성 대상 면담, 사서 면담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련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제안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분석,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서비스 담당 사서 대상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2022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기관 132개관이 실시한 다문화프로그램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기관의 목록, 『2022년 다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자료집,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공유시스템, 도서관 홈페이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132개관에서 진행한 다문화프로그램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4개관을 제외한 128개관의 326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위한 기준은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분류 기준에 의거해서 수행되었다.

### 3.2 결혼이주여성 대상 요구 및 경험 조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및 고민과 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비롯한

다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결혼이주여성은 질적 연구의 표본선정 방법 중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의 지인인 결혼이주여성을 섭외하였다. 해당 결혼이주여성은 본 연구의 참여자 6으로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인 G 지역에 거주하며 모국의 전통 음식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결혼이주여성을 알고 있었다. 참여자 6의 도움으로 한국어 질문을 듣고 이해하여 답변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소개받았다. 그 결과 총 7인의 결혼이주여성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7인의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면담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3년 3월 18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차 면담과 2차 면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참여자 전원 대면으로 참여자의 집이나 집 근처 카페에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추가 면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 3, 5, 6을 대상으로 2차 면담을 1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수행하였다.

<표 2>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분류 기준

기준	내용	참고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강원도, 제주도	문화체육관광부(2012b)
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 전체 대상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공유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2012a)
유형	견학, 공연, 강의, 전시, 체험, 토론, 기타	문화체육관광부(2012b)
내용	다문화 이해 및 체험, 한국문화 이해 및 체험,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독서지도, 부모교육(자녀독서지도), 심리상담(독서치료), 정보화교육, 취업 및 자격증, 여가(견학, 관람, 연극, 인문학, 창작 등), 전시, 기타 행사	안인자, 박미영(2011),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공유시스템

〈표 3〉 결혼이주여성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출신 국적	한국 거주기간	가족 구성원	직업
참여자 1	59	일본	27년	남편, 자녀 4명(모두 성인)	주부
참여자 2	35	필리핀	8년	남편, 아들 2명(10세, 8세)	호텔 일용직
참여자 3	43	필리핀	16년	남편, 아들 2명(16세, 15세)	영어 강사
참여자 4	51	필리핀	20년	남편 사별	일용직
참여자 5	37	필리핀	9년	남편, 딸 2명(9세, 7세), 아들 1명(8세)	공장 일용직
참여자 6	47	필리핀	16년	남편, 아들 2명(16세, 13세)	자영업
참여자 7	55	중국	12년	남편	주부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목적과 내용, 절차를 소개하였고, 면담 전 녹취 안내 및 연구의 활용 용도,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원치 않을 시 언제든지 면담을 종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 참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모든 면담은 휴대전화기로 녹음되었고, 면담 직후 이를 전사하였다. 면담을 마친 뒤에는 면담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면담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4〉와 같이

구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면담은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답변에 따라 후속 질문을 질의하는 등의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3.3 사서 대상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경험 조사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서를 면담하여 프로그램의 제공 경험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사서는

〈표 4〉 결혼이주여성 질문지

범주	내용	참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	1.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2.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3. 현재의 주요 고민	전혜경(2022)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	1. 한국어 학습 경험 2. 한국어 실력 3.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은 상황	장예슬, 김지현(2016)
도서관 이용 경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 2. 국내 도서관 이용 경험 3. 필요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4. 선호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유형	장예슬, 김지현(2016)

의도적 표집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기관인 132개관을 검토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집과 언론 등에 소개된 7개관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의 다문화서비스 담당 사서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7개 도서관에 전화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밝힌 결과 4개관의 사서가 면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4개관을 K, G, B, D 도서관이라 기술하였으며, 이 중 K, G, B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2회 이상 연속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취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한 ‘다문화어학당’, 독서지도 및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아무튼 작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도서관에서 한국 속의 나를 발견하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D 도서관은 다문화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2009년 개관하여 2023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라이프러리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와 연결시켜 왔다. 연구 참여자인 도서관 사서의 세부 특징은 <표 5>와 같으며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K, G, B, D 사서로 칭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당 사서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 참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면담은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4월 13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휴대전화기로 녹음되었고, 면담 직후 녹음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다. 면담을 마친 뒤에는 면담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6>과 같이 구성하였다.

### 3.4 면담자료의 분석 방법

면담자료의 분석은 질적 분석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질적 연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QSR NVivo Windows(Release 1.7.1.)를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면담자료의 핵심의미인 코드를 찾아내고 이러한 코드를 계층적 범주화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와 상위범주인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5> 사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소속	지역	나이	성별	취득 사서 자격증	담당 업무	도서관 근무 기간	다문화서비스 담당 기간
K 사서	K 공공도서관	부산	31	여	2급 정사서	다문화 자료실 운영	2년	8개월
G 사서	G 공공도서관	전남	35	남	2급 정사서	일반 서무, 수서, 취약계층 국비 공모사업	8년	2년
B 사서	B 공공도서관	대구	41	남	2급 정사서	도서관밖도서관 총괄 운영	11년	4년
D 사서	D 작은도서관	대구	34	여	2급 정사서	도서관 전담 운영	10년	10년



〈표 6〉 사서 질문지

범주	내용	참고
소속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1. 다문화서비스 현황 2. 다문화서비스 주안점 3. 협력 4. 다국어 장서 및 다문화이해 도서 수집 및 이용	양인혜(2014), 장덕현, 이연옥(2017)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1.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서비스의 필요성 2.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서비스의 애로사항	양인혜(2014), 장덕현(2014), 장덕현, 이연옥(2017)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경험	1. 해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해당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3.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반응 4. 향후 프로그램 계획	장덕현(2014), 장덕현, 이연옥(2017)

## 4. 연구 결과

### 4.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결과

#### 4.1.1 지역별 분포 현황

128개관이 운영한 326개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26.4%), 경기(12.9%), 경남(9.8%), 인천·대구·부산(각 8.3%), 전남(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앞서 〈표 1〉 거주 지역별 결혼이주여성의 분포 비율에서 경기(30.0%), 서울(18.9%), 인천(7.0%), 경남(5.9%), 충남(5.1%), 경북

(4.7%), 부산(4.1%) 등의 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 거주 비율과 다문화프로그램의 지역별 분포 비율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 비율에 따른 다문화프로그램의 적절한 안배가 요구되는데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하여 경북, 충남 등의 지역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4.1.2 프로그램 대상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살펴 보면 전체 326개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50.3%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

〈표 7〉 다문화프로그램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프로그램 수(개)	86	42	27	7	9	4	9	24	5
백분율(%)	26.4	12.9	8.3	2.1	2.8	1.2	2.8	7.4	1.5
지역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강원	제주		합계
프로그램 수(개)	5	32	27	1	27	4	17		326
백분율(%)	1.5	9.8	8.3	0.3	8.3	1.2	5.2		100

며, 유아가 4.0%, 청소년 이 1.8%로 나타나고 있어 대상별 안배가 필요하다(〈표 8〉 참고).

이들 다문화프로그램 중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6.4%, 이주민이 22.7%, 선주민과 이주민을 함께 모집하는 경우가 70.9%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이주민과 선주민을 구분하여 모집하기보다는 함께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선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21개를 제외한 305개 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로 운영 대상을 한정한 1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총 304개(93.3%)의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그 자녀(유아, 아동, 청소년)나 다문화가족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다문화프로그램의 다수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3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은 일반 강의(46.7%)와 체험(43.6%)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9〉 참

고). 일회성인 견학, 공연, 전시 등은 소수 진행되며 대부분이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회성이지만 체험 형식의 경우 일회성과 다회성 모두 포함하고 있다.

#### 4.1.4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다문화 이해 및 체험(111건, 34.0%), 독서지도(96건, 29.4%), 여가(견학, 관람, 연극, 인문학, 창작)프로그램(46건, 14.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독서자료를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파악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인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홀로 건디는 외로움 등을 해소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심리상

〈표 8〉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대상

운영 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			지역 주민 전체	합계		
	선주민	이주민	공통	선주민	이주민	공통	선주민	이주민	공통	선주민	이주민	공통	선주민	이주민	공통		선주민	이주민	공통
프로그램 수	0	2	11	4	19	141	1	2	3	13	26	23	3	25	22	31	21	74	231
백분율(%)	0.0	0.6	3.4	1.2	5.8	43.3	0.3	0.6	0.9	4.0	8.0	7.1	0.9	7.7	6.7	9.5	6.4	22.7	70.9
합계	13			164			6			62			50			31	326		
백분율(%)	4.0			50.3			1.8			19.0			15.3			9.5	100		

〈표 9〉 프로그램 유형

운영형식	견학	공연	강의	전시	체험	토론	기타	합계
프로그램 수(개)	5	18	152	4	142	3	2	326
백분율(%)	1.5	5.5	46.7	1.2	43.6	0.9	0.6	100

〈표 10〉 프로그램 내용

내용	다문화 이해 및 체험	한국문화 이해 및 체험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독서지도	부모교육 (자녀독서지도)	심리상담 (독서치료)
프로그램 수(개)	111	27	6	5	96	8	2
백분율(%)	34.0	8.3	1.8	1.5	29.4	2.5	0.6

  

내용	정보화 교육	취업 및 자격증	여가(견학, 관람, 연극, 인문학, 창작)	전시	기타(행사)	합계
프로그램 수(개)	9	11	46	4	1	326
백분율(%)	2.8	3.4	14.1	1.2	0.3	100

담, 정보화 교육, 취업 및 자격증,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결혼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 중 결혼이주여성이 강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30개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프로그램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독서지도 활동이 주를 이룬다.

#### 4.2 결혼이주여성의 요구 및 도서관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자료를 코딩한 결과 총 306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이들 코드를 계층적 범주화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의 삶, 한국어 학습, 도서관 경험, 도서관 프로그램 수요라는 4개의 상위범주 아래 10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 4.2.1 한국에서의 삶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에서의 정착과 삶은 어

려움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귀화 문제, 은행·병원 방문 시 어려움, 가족 문제, 자녀교육 및 양육, 경제활동, 의사소통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귀화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면사무소나 시청과 같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볼 시 남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은행과 병원 방문을 한국 생활의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이나 공과금 납부 등의 기본적 업무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병원 방문 시에는 의료인의 설명을 알아듣기가 힘들며 본인이나 자녀의 증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힘들다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에게 우리 아이들 어디에 어떻게 아팠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이 부족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요.(참여자 5).

〈표 11〉 결혼이주여성 면담 범주화 결과

상위범주	의미 단위	내용
한국에서의 삶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귀화 문제, 은행·병원 방문 시 어려움, 가족관계, 자녀교육 및 양육, 경제활동, 의사소통 문제
	어려움의 극복	• 스스로 극복,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의지, 자조 모임, 자녀와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의 도움, 종교에 의지, 한국인 조력자의 지원
한국어 학습	한국어 실력	• 여전히 부족한 한국어 실력, 한국어 쓰기에 대한 어려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	•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 귀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학습 욕구
	한국어 학습 방법	• 독학,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습득, 다문화 지원기관·도서관의 한국어 교육
도서관 경험	도서관 이용 경험	• 모국 도서관 이용 경험 • 한국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의 장벽	• 이용하는 이유, 이용하지 않은 이유 • 이용의 어려움
도서관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경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인식 • 프로그램 참여 시 자녀 돌봄 문제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형식	• 이주민 대상 집합 프로그램 • 이주민과 선주민 함께 참여하는 방식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	• 시 읽기와 쓰기 등 독서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임신 및 출산 교육, 자녀교육 및 양육, 취업 및 사업 지원, 컴퓨터 교육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는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을 꼽았는데 결혼 초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함께 거주하니 잦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였고, 남편의 음주와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도 토로하였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자녀 한국어 실력에 대한 걱정,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느꼈던 두려움과 걱정,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 사춘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2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들이 일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탓도 있지만, 무료한 일상을 견디기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돈을 쓰기 위해,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모두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가족이나 남편이 취업에 도움을 주지 않아 스스로 직장을 구해야 하나 서툰 한국어 실력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쉽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의사소통 문제로,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문제이다. 이들에게 이주 전 한국어 학습에 대한 경험을 물으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도의 문장만 알고 왔다고 하였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소통도 안 되니까. 남편은

한국말밖에 몰랐고, 한국말 공부를 시작하던 때  
라 너무 힘들었어요(참여자 3).

이들에게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  
했는지를 문자 스스로 극복하거나, 모국에 있  
는 가족과 통화 또는 이주여성 친구들과 만나  
서 대화로 풀거나, 자녀와 남편 및 시댁 식구들  
의 도움, 종교에 의지하거나, 한국인 조력자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 4.2.2 한국어 학습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8년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듣기에는 자신감을 보였으  
나 읽기, 말하기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  
였으며 특히 쓰기에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기에, 귀화를 위해서, 자신보다 한  
국어 실력이 유창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위  
해서 한국어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  
여자 5는 베트남 출신 지인을 예로 들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며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은 책과 교재를 보고 독  
학,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습득, 다문화 지원기  
관에서의 방문·집합교육, 도서관과 여성회관,  
YMCA 같은 기관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것  
으로 확인된다. 참여자 2가 이주한 1990년대 후  
반에는 지금처럼 한국어교육이 다양하게 지원  
되지 않아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여야 했으  
며, 참여자 7의 경우 다문화 지원기관에서 한국

어교육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독학으  
로 익혔다. 한국어 실력이 가장 출중한 참여자  
3의 경우 다문화 지원기관, 도서관, 여성회관,  
YMCA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여 학습하였  
다. 그 이면에는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한국어  
를 배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정보를 알아  
봐 준 시아버지 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때 한국어 교실이 많았어요. YMCA에도, 도  
서관에도 있었고, 여성회관도 있었으니까. 또 임  
신으로 제가 한글 공부를 위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문 선생님이 오셔서 공부를 도  
와주셨어요(참여자 3).

#### 4.2.3 도서관 경험

연구 참여자들에게 모국에서의 도서관 경험  
을 문자 모두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한국에서  
의 도서관 경험을 문자 2명은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하였다. 참여자 1의 경우 도서관이 어디 있는  
지 알고 있지만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가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의사소통도 서툴며 도  
서관의 회원가입 절차 등이 복잡할 것이라 지  
레 짐작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7은 모국에서는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했으나 한국에서 이용  
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말을 잘 모르고, 일하느  
라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고 답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  
해서 문자 책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로 답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문자 어눌한 한국어 실력으로 주눅이 들어서,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 시간

대가 맞지 않아서,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책을 읽을 생각이 없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 참여자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나마 도서관을 이용했지만, 책을 읽을 상황도 아니고, 본인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며 도서관 방문과 이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도서관을 책을 보러 가는 공간으로 이해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4.2.4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다문화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에, 도서관 프로그램 경험자는 참여자 3, 5, 6뿐이었다. 이들은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자녀들을 맡겨둘 데가 없어 도서관에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은 임신한 상태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며 첫째 아이를 프로그램에 데려갔으며, 참여자 6은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을 어린이실에 두고 갔다는 경험을 전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요구하였다. 아울러 임신 및 출산 관련 교육, 자녀교육 및 양육, 취업 및 사업 정보 지원, 컴퓨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독서프로그램을 비롯한 여가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이를테면 참여자 3은 부족한 한국어 쓰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시를 읽고 쓰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참여자 1은 본인의 스트레스와 슬픔을 완화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 5는 한국문화가 낯선 상태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한 꺼번에 겪어 무척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였다. 자녀가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녀교육 및 양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는데, 아직 자녀가 7~9세인 참여자 5는 특히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과 모국어 학습에 관심을 표했다.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참여자 3과 6은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녀의 비대면 수업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컴퓨터 활용 교육에 대한 수요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며(참여자 6), 취업 및 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표하기도 하였다(참여자 3, 4, 5, 6).

한편, 이들은 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이주민으로 구성된 집합교육,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호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집합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서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동시에 이주민으로만 구성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내용에 따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한 참여자는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되어

도 한국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이웃처럼, 친구처럼 어울릴 수 있는 사교의 장을 기대하였다.

나는 섞여 있는 거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일반 산모들이랑 같이 임신 교육받았거든요. 그때 같이한 분들과 다른 수업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좋았어요, 무조건 다문화만 따로 하지 말고, 한국 사람과 부딪히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3).

### 4.3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경험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서의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33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며, <표 12>와 같이 다문화 자료실과 다문화 장서,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라는 3개의 상위범주 아래 10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표 12> 사서 면담 범주화 결과

상위범주	의미 단위	내용
다문화 자료실과 다문화 장서	다문화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자료실의 이용이 저조한 공공도서관 대부분 영어 장서 이용하기 위한 선주민 이용자</li> <li>• 선주민과 이주민 이용이 활발한 다문화특화도서관</li> </ul>
	다문화 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된 예산, 다문화 장서 수집을 위한 노력</li> <li>• 영어 장서 이용 활발, 그 외 언어는 이용 저조</li> <li>• 도서관의 다문화 장서 수집의 중요성</li> </ul>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	프로그램 기획에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다문화 관련 통계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li> <li>• 타 기관과의 차별성 고민, 기존 선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이주민의 상황과 연계</li> <li>• 강사 섭외의 어려움</li> <li>•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상황</li> <li>• 결혼이주여성 다문화프로그램과 자녀프로그램 동시 개발</li> <li>•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li> </ul>
	참여자 모집을 위한 노력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li> <li>• 언론 보도, 타 기관 홍보 요청, 현장 방문, 이주민과 강사 활용, 이주민 게이트키퍼 활용,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 SNS</li> </ul>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생들의 상이한 한국어 수준, 보조강사의 필요성</li> <li>• 타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 구현</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기관, 다문화 사업과 연계, 대학과의 협력, 마을공동체와 협력</li> </ul>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다문화서비스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자료실, 다문화 장서의 가치 인식</li> <li>•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li> </ul>
	다문화서비스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li> <li>• 지역 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안배</li> <li>• 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 다양성 함양</li> <li>• 다문화 커뮤니티의 구심점</li> </ul>
	다문화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서비스 대상의 발굴</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중 청소년층 서비스의 필요성</li> </ul>
	다문화서비스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지원</li> </ul>
	다문화서비스 전문성 개발의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보직, 과중한 업무, 부족한 인력</li> <li>•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절대 의존하는 관행</li> <li>• 전공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도서관 현장 상황</li> </ul>

#### 4.3.1 다문화 자료실과 다문화 장서

K, G, B 도서관 모두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자료실 이용자는 이주민보다는 영어 장서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선주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주민의 자료실 이용이 활발한 D 작은도서관은 다문화특화도서관으로 도서관 자체가 다문화 자료실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주민의 이용뿐 아니라 선주민의 이용도 활발한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사서들은 다문화 장서의 경우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서 이용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구입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하였다. 수서는 다문화서적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도서 목록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D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주민 이용자의 희망 도서를 적극 반영하고 있었다. 수서하는 장서의 종류는 모국어 장서 외에도 한국어와 모국어가 병기된 이중언어 도서, 국내서 번역서,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책 등 다양하였다.

사서들은 도서관의 다문화 장서의 개발과 제공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다문화 장서 이용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다문화서비스를 하는데 장서를 빼놓을 수는 없으며 단 한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더라도 이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다문화 장서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K, G 사서).

#### 4.3.2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

사서들이 프로그램 기획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였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프로그램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별도로 다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다문화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기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다문화 가구 통계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를 통한 수요 파악, 직접 이주민 이용자에게 질의하는 등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도서관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항목을 넣어서 조사해요(K 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를 해 담당 선생님한테 결혼이주여성들이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해요(G 사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을 선호해요(D 사서).

프로그램 수요에 대한 파악과 함께 사서들은 도서관 이외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가 높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지원기관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사서들은 도서관



이 기존에 운영해온 이용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이주여성의 상황에 접목하거나 연계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G 도서관의 '아무튼 작가'라는 독서프로그램은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속한 경험을 살려 이주민 대상으로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D 작은도서관의 '라이프러리 라디오'라는 디지털 리더러시 프로그램은 타 도서관의 사람책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사서들은 도서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주민의 상황과 연계하여 개발했던 점이 주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 기획 시 사서들은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강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다문화어학당' 프로그램을 이끄는 K 사서의 경험에 따르면 강사 섭외가 무엇보다 어려웠다고 전했다. K 도서관이 운영한 이 프로그램이 선주민에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자 강사를 추가 모집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주민 강사를 활용할 경우 한국어 실력과 함께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에 강사의 발굴 및 모집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선주민 강사의 섭외도 사서들에게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확인되었으며 수소문, SNS 접근, 강사 웹사이트, 기존 인력풀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가 뭔가 평생학습 관련한 포털이나 이런 데도 정말 재능 많은 강사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맞는 사람인지를 알기에는 그 안

에 정보들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강사 SNS를 뒤져 보면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자기 가치를 강사분들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으면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해보죠. 그런데 연락처를 몰라 DM(Direct Message)을 보내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D 사서).

아울러 사서들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전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기에 사서들은 이를 인지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주로 주말 이전에 개설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B 도서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진행 시 동 시간대에 옆 강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다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대응을 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 동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홍보 요청, 이주민이 있는 현장 방문, 친분이 있는 이주민과 강사 활용, 이주민 게이트키퍼 활용,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 SNS 활용 등 다각적으로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홍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 홍보를 많이 부탁을 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뭔가 좀 기획이 괜찮고 참여자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단체로 오셔서 수업을 듣기도 하시고(G 사서).

D 사서는 언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홍보뿐 아니라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접 찾아가 홍보하기도 하고, 이주민 강사를 비롯한 이주민 게이트키퍼를 활용한 홍보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주민분들도 본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드려요. 좀 오래 본 분한테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신이 아는 모임에 100명의 이주민이 있대요. 거기다가 뿌려주면 또 오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D 사서).

이렇게 이주민에게 직접 홍보가 되어 이주민들 사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이 나게 되면 뒤늦게 참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인원이 8명, 7명 막 50% 겨우 넘겨서 시작했는데 뒤늦게 입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 3회차 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자기도 하고 싶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G 사서).

한편, 사서들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도 수강생들의 상이한 한국어 수준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B 도서관은 이주여성을 다문화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사서들은 다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협력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의 과정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기획 시 의견 수렴, 홍보와 수강생 모집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G 사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을 도드라지게 이행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였고, 또한 서로 중복된 프로그램의 개설을 막고자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조정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수강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D 작은도서관은 인근의 공공도서관과 다문화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예산과 강사를 지원해주면 D 작은도서관이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 방식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이 일상화되고 있었다. 이 밖에 K 도서관은 인근 대학의 특수외국어교육전공학과와 협력하여 '다문화 인문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D 작은도서관은 인근 대학의 한국어교육전공학과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D 작은도서관은 인근의 S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였는데, S 마을공동체의 경우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노하우를 살려 D 작은도서관의 '라이프러리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이 기획되었다. 이처럼 다문화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4.3.3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사서들은 다문화 자료실과 다문화 장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테면 G 사서는 이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며, 비록 경험이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일지라도 이주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D 사서는 이주민의 요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일단 물꼬만 트이면 어렵지 않다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다문화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담당 사서의 인식과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를 지원하려는 사서의 적극적인 태도와 도전이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개별 사서들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각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이주민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K, B 사서). B 사서는 기존 인연을 맺은 이주민 강사를 비롯한 이주민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문화 자료실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도서관에 이주민 이용자를 끌어들이려 노력하였고, 행사로 다문화 부스를 운영할 때는 친분이 있는 이주민에게 운영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베트남분, 중국인분 등 제가 ○○도서관 때부터 알던 분이어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해주셔요. 다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할 때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다 가지고 와 부스를 운영해 주셨어요(B 사서).

아울러 이러한 이주민들이 도서관과 다문화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며 서비스 기획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G 사서는 '지역 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의 안배'를 언급하며 지역 단위 도서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D 사서는 다문화프로그램이 문화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 다양성 가치 함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B 사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다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서들은 다문화서비스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내용과 방향, 주요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서들은 다문화서비스 대상 확대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거주가 장기화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청소년기로 진입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그간 운영

해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유·아동 대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층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운 서비스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더해, 사서들은 다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타 기관과 구별되는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서들은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정체성에 대해 '책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입장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요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책을 활용하거나 독서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타 기관과의 차별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지원기관을 비롯한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개발·제공되지 않은 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의 중복이 주된 이유라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사서들은 다문화 지원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도서관만의 서비스 제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서들은 순환보직,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순환보직이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함양에 방해가 된다면, 이러한 업무 관행이 새로운 다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보다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 사서들의 평가다. 동시에 다문화서비스에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인해 다문화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더불어 사서들은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예산 부족을 다문화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소속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지원금에 의존하여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서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시 동일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애를 썼다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현 관행은 새로운 다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함께 사서들은 사서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업무의 비율이 높다는 점,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다문화프로그램 기획으로 인해 서비스 담당 초기에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면 전공 교육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도서관 현장 상황이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 4.4 분석 결과의 시사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자인 사서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다문화프로그램의 다수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다문화 이해 및 체험과 독서지도 프로그램이었다. 공공도서관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 및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귀화 문제, 의사소통 문제, 자녀교육 및 양육, 은행·병원 방문 시 어려움,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수요는 독서, 심리지원, 한국어교육,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과 교육, 취업 및 사업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도 장벽이 확인되고 있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서관 사서와의 면담 결과에서도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그 배경에는 사서들의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문화서비스 및 장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자각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치를 위해 이주민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성, 이주민과의 우호적 관계 유

지,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이 이들 사례 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서들의 이 같은 노력과 활동 이면에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 문제가 다문화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 난관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다음 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이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 4.5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전략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결혼이주여성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자인 사서의 경험과 인식을 종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 방식,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인력 활용, 타 기관과의 협력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4.5.1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내용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수요와 도서관 이용에서의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귀화 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과는 차별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운영하

도록 한다. 도서관이 운영해온 독서프로그램 특성과 장점을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리터러시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사례인 D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한 이주민 대상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책 및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이주민의 한국어 발음 개선을 비롯하여 한국어 리터러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수준별 독서자료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독서자료 안내를 비롯하여 귀화 준비와 대응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운영도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은행과 병원 방문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교육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금융 전문가와 의료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은행·병원 이용법, 은행·병원의 전문 용어 설명,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건강 문제와 연관되는 이주여성의 임신 및 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산전·산후 관리와 임신·출산 교육, 태교 등과 관련한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 및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 지원을 위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예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학습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서 스토리타임(story time)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점차 비율이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지역의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 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을 살려 이들이 도서관의 이중언어 스토리 타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생활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이나 부부 갈등, 자녀와의 갈등 등 가족 간의 갈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관련 자료 제공을 비롯한 정보서비스의 개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 참여자의 경우 7명 중 5명이 한국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관련 연구에서는 모국에서조차 도서관 이용 경험이 빈약하거나(구정화 외, 2020), 한국의 도서관 이용 경험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연옥, 장덕현, 이승민, 2022). 따라서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 다문화 자료실과 장서에 대한 홍보,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서관으로 이주민을 적극 유치하려는 도전이 필요하다. 만약 별도의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다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도서관 이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 및 사서에게 질의하는 것을 꺼리는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여 다국어로 작성한 도서관 이용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 가이드북은 관내에 비치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지원기관이나 이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제공하여 비치할 요청할 수 있다.

#### 4.5.2 프로그램 운영 방식

결혼이주여성들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시 이주민으로 구성된 집합교육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선호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한국어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주민들끼리의 집합교육이 적절하지만, 가족프로그램, 자녀교육 및 양육 프로그램은 같은 고민을 지닌 선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시간대에 다문화가족 자녀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자원봉사를 활용한 돌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서관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방문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다문화프로그램 사례조사 대상이었던 G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임여주, 2018). 따라서 이주민이 많은 다문화 지원기관이나 지역사회로 찾아가 아웃리치 형태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4.5.3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인력 활용

다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서들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과 강사의 섭외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주민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도서관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참여자 모집을 위해서는 이주민커뮤니티, 이주민 게이트키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에게 도서관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여 다문화 커뮤니티 형성 및 선주민과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강사와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강사의 경우, 한 기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다문화 지원기관 등 여러 곳에서 활동하기에 유용하다.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에 밝은 이주민 강사는 이주민 게이트키퍼만큼이나 이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수요 조사, 프로그램 기획 회의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사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간의 긴밀

한 협의와 공유를 통해 중복된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와 도서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한편, 사서들은 인력 부족에 대한 고충과 결혼이주여성의 상이한 한국어 실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인력의 보조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파견된 이주민을 다문화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투입하거나 다문화 자료실에서 다문화서비스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주민을 사서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다국어 장서의 편목 검수와 참고 봉사 업무에 투입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이미정, 이미정, 2013). 더불어 이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4.5.4 타 기관과의 협력

결혼이주여성의 수요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다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서와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문화지원기관이었으며 기관 간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기도 하고, 담당자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 다문화 지원기관은 이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도서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이주민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가장 집적되어 있다. 상호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복되는 서비스는 배제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성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다문화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

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관 간 역할 분배로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모사업 지원 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 대학의 한국어교육전공이나 특수외국어교육전공학과와 협력하여 질 좋은 다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실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은 이용자의 만족으로 이어지며, 협력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하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도서관 이용 경험과 프로그램 수요 파악을 위한 면담을 수행하였고, 결혼이주여성 대상 특색 있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서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1)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내용, 2) 결혼이주여성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 3) 도서관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인



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4)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범위와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도서관이 그러한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주민들끼리는 비교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 거주가 오래되어도 선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기초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은 도서관이 다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은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만남과 대화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한 사서의 문제의식이 확인되었는데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자체 예산의 확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규모 확대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배경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서들의 시행착오 경험을 고려한다면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관련 이론과 지식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공유시스템의 개선과 활성화가 요청된다. 다문화프로그램공유시스템은 전국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의 자료를 한곳에서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프로그램 사례조사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나, 등록된 사례의 수가 적고 내용적 부실함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시스템 관리상의 미흡함과 사서들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어 활용된다면 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의견교류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조사, 결혼이주여성과 사서와의 면담 등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기초로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적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 도서관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공수연, 양성은 (2015).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171-184. <https://doi.org/10.5934/kjhe.2015.24.2.171>
- 구정화, 우윤희, 신난희, 조용완 (202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주민과 다문화전문가 및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213-243.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213>
- 김경애, 김정순 (2015).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모성역할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자녀를 둔 모성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8, 5-28.
- 김미영 (2018).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위한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복지실천학회지, 9(1), 79-103.
- 김양은 (2009).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실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활용, 11-24.
- 문화체육관광부 (2012a).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11-1371000-000422-01).
- 문화체육관광부 (2012b).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12-1371019-000014-01).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2년 다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년불명].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공유시스템.  
출처: <http://multiculture.clip.go.kr/damunhwa2023/>
- 박경자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2, 65-89. <https://doi.org/10.25022/rskle.2020.12.65>
- 박동숙, 임혜영, 김은경 (2019).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5, 5-41. <https://doi.org/10.16975/kjfs.2019..65.001>
-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https://doi.org/10.22772/pnujws.24.2.201406.269>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11-1460000-002610-01).
- 서인주, 박정숙 (201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성인간호학회지, 27(2), 198-210. <http://dx.doi.org/10.7475/kjan.2015.27.2.198>
- 안인자, 박미영 (201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9-301. <https://doi.org/10.4275/kslis.2011.45.3.279>
- 양인혜 (2014). 공공도서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1-1383000-000384-12).
- 이미정,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295-321.  
<https://doi.org/10.16981/kliss.44.4.201312.295>
- 이상노, 이현심 (201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105-136.  
<https://doi.org/10.15300/jcw.2014.49.2.105>
- 이연옥, 장덕현 (2015).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171-199.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171>
- 이연옥, 장덕현, 이승민 (202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37-163.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37>
- 이현실, 최세민, 이형선 (2011). 그림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여성의 자신감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51-27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251>
- 인효연 (2020).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변화. 예술심리치료연구, 16(1), 161-188. <https://doi.org/10.32451/kjoaps.2020.16.1.161>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 임여주 (2018).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다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99-3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 장덕현 (201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73-192.  
<https://doi.org/10.4275/kslis.2014.48.4.173>
- 장덕현, 이연옥 (2017).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47-263.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247>
- 장예술, 김지현 (2016).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3), 195-21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195>
- 전혜경 (202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관한 모형: 베트남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2, 107-142.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5.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4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처: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IMkYyMjclMkY1NzA5OTYI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l2YmJzQ2xTZXEIM0QI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xJTl2>

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135>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Inja & Park, Miyoung (2011).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and improvement methods analyzed from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9-301. <https://doi.org/10.4275/kslis.2011.45.3.279>

Chang, Durk Hyun & Lee, Yeon Ok (2017).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247-263. <https://doi.org/10.4275/KSLIS.2017.51.3.247>

Chang, Durk Hyun (2014). A research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73-192. <https://doi.org/10.4275/kslis.2014.48.4.173>

Han, Yoon-Ok, Cho, Mi-Ah, & Kim, Soo-Kyoung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135>

Hong, Ki Hye (2000). The Gender Politics of Migration Viewed through Marriages between Chosun-jock(Korean-Chinese) Women and Korean M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In, Hyoyeon (2020). Changes i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group art therap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6(1), 161-188. <https://doi.org/10.32451/kjoaps.2020.16.1.161>

Jang, Ye-Sol & Kim, Ji-Hyun (2016). A study on library anxiet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Gwang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195-21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195>

Jeon, Hye-kyung (2022). A model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arried migrant women to Korean life: focusing on Vietnames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 Studies, 12, 107-142.
- Kim, Kyung Ae & Kim, Jeong Soon (2015). The development of a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ing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8(48), 5-28.
- Kim, Mee young (2018).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the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 Journal of Welfare Practice*, 9(1), 79-103.
- Kim, Yang-Eun (2009). Achiev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implications from a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gra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1st Multicultural Society Information Forum: Information Utiliz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11-24.
- Kong, Suyoun & Yang, Sungeun (2015). A study on the bilingual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2), 171-184.  
<https://doi.org/10.5934/kjhe.2015.24.2.171>
- Koo, Joung Hwa, Woo, Yunhee, Shin, Nanhee, & Cho, Yong Wan (2020). Immigrants' multicultural experts' and librarians' perception and needs analysis on current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213-243.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213>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3. 5. 17.). Korea immigration statistical monthly report: April 2023. Korea Immigration Service. Available: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zA5OTYl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I2YmJzQ2xTZXEIM0QI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IMjZzcmNoV3JkJTNEJTI2>
- Lee, Hyun-Sil, Choi, Se-Min, & Lee, Hyung-Sun (2011). The analysis on confidence of multicultural women through a picture story read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51-27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251>
- Lee, Mijung & Lee, Mi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95-321.  
<https://doi.org/10.16981/kliss.44.4.201312.295>

- Lee, Sang No & Lee, Hyun Sim (2014). Adaptation living in Korea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9, 105-136.  
<https://doi.org/10.15300/jcw.2014.49.2.105>
- Lee, Yeon-Ok & Chang, Durk-Hyun (2015).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171-199.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171>
- Lee, Yeon-Ok, Chang, Durk-Hyun, & Lee, Seung-Min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137-163.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37>
- Lim, Anna (2005). Family Relationship and Transnational Network of Filipino Wives Married Korean Husband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im, Yeojoo (2018). A study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libraries and local organizations: focusing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99-3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29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a).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Programs Utilizing Culture and Arts (11-1371000-000422-0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b).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12-1371019-000014-0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Introduction of Outstanding Multicultural Program Cases in 202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d.]. Library's Multicultural Program Sharing System. Available: <http://multiculture.clip.go.kr/damunhwa2023/>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National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2021 (11-1383000-000384-1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11-1460000-002610-01).
- Park, Dong Sook, Lim, Hae Young, & Kim, Eun Kyung (2019). Study on adaptation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65, 5-41.  
<https://doi.org/10.16975/kjfs.2019..65.001>
- Park, Kyung-ja (2020). A study of educating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to marriage migrant women.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2, 65-89.  
<https://doi.org/10.25022/rskle.2020.12.65>

- Park, Misuk, Kim, Youngsoon, & Hong, Euna (2014). A study on needs of job-seeking support for the immigrant married women.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24(2), 269-302. <https://doi.org/10.22772/pnujws.24.2.201406.269>
- Seo, In Ju & Park, Jeong Sook (201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2), 198-210. <http://dx.doi.org/10.7475/kjan.2015.27.2.198>
- Yang, In Hye (2014). A Study on Promoting Multicultural Service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